

아플 수 있잖아

한국여성민우회 펴냄

성평등도서관 여기



GL00003004



서울시여성가족재단



(121-847)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49-10 시민공간 나루 3층

Tel 02-737-5763 Fax 02-736-5766

홈페이지 www.womenlink.or.kr

블로그 <http://womenlink1987.tistory.com>

이메일 minwoo@womenlink.or.kr

트위터/페이스북 @womenlink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이메일 womensbody@womenlink.or.kr

트위트 @WomensBody

목차

머리말	8	1장	
2014년 봄과 여름,	12	‘진단명 _____’	
민우회가 만난 그녀들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아아, 내가 그래서 아팠구나”	16
		갑작스런 일, 준비가 필요해	19
		2장	
		“왜 아프고 그러노 아프지 말지”	
		당사자만 아는 예상치 못한 일상사	24
		내가 환자라는 걸 말하고 싶지 않다	27
		나를 ‘일반인’으로 보지 않는 구나	30
		듣기 좋은 꽃노래도 때로는	33
		가까워서 더 치명적인	36
		여전히, ‘여자 역할’이라니	40
		‘팔자 사나운 애가 들어왔구나’	46
		‘결’들의 움직임	49
		각자의 위치에서- 힘이 되어 준 사람들	53
		지금 당신 곁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55
		환우모임 이야기	58

3장

멀고, 거대한, 병원

기꺼이 네 말을 들으리라	68
그러니까 좀 친절하면 안 되겠니	70
의사는 스칠 뿐	74
왜 그걸 나한테 설명을 안 해주지?	75
문지마 의료 “판단은 내가 한다”	78
더 나은 의료는 가능하잖아	80
의료가 돈벌이 수단이 되면	82
환자를 인간으로 고려한다면	85
객관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90
변화는 더딜 테니까 지금,	91
환자로서 우리는	
5년이면 끝?	96

4장

변화하는 나의 몸

아름답지 않다	102
“괜찮냐. 진짜 괜찮냐.”	103
‘여성성’? 글썄요	104
체력부터 입맛까지, 낯선 순간들	111
변화하는 몸과 다시 관계맺기	114
지울 수 없는 상실감 앞에서	120